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금리 상승에도 미국 실적모멘텀은 글로벌 최상위. IT 뿐 아니라 금리 상승 수혜로 금융 실적모멘텀 크게 부각. 고유가로 에너지 역시 실적모멘텀 확산 중. 델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술하드웨어 섹터의 실적모멘텀 최상위 기록. AI 이익 모멘텀이 GPU 칩셋(Nvidia)에서 서버·스토리지 시스템 레이어로 확산되는 구간에 진입. Nvidia는 이번 주 +1.6%로 전주 +13.2% 대비 크게 둔화된 반면 Dell이 그 자리를 대체. 이는 AI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수혜 구간의 이동

Dell Technologies: 9/1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14.6%

매출 470억달러(YoY +58%, 역대 최고), 희석 EPS 7.04달러(YoY +203%). AI 서버 신규 수주 609억달러, AI 서버 매출 164억달러, 수주잔고 950억달러(전분기 513억달러). ISG 부문 매출 318억달러(YoY +89%), 전통 서버·네트워킹 +122%, 스토리지 +26%. FY2027 매출 가이드스 1,920억달러(250억달러 상향), EPS 25.50달러(+150%). Q3 매출 가이드스 490억달러(+81%). Jeff Clarke는 DRAM·NAND·CPU 전반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언급

Snowflake: 9/2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시간외 주가 +23%

매출·EPS·연간 가이드스 모두 컨센서스 상회. AI 데이터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제품 매출 성장 재가속으로 확인. 1주 EPS 추정치 변화율 +10.8%로 커버리지 내 전체 2위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9/4 발표, 컨센서스 약 3배 상회

비농업 고용 +16.2만명(컨센서스 +5.3~5.5만명), 실업률 4.1% 유지. 6·7월 고용은 합산 5.5만명 상향 수정됐으며, 7월은 감소에서 +2.1만명으로 반전.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49.4%에서 58%로 급등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기술하드웨어(1주 +0.33%, 1개월 +0.56%, Dell +32.5, 삼성전자 +1.3, Hon Hai +1.1, Seagate +0.6)

이번주 전 업종 1위. Dell이 단독으로 업종 전체를 견인. AI 서버 백로그 \$950억은 계약된 매출로, "수요 둔화" 내러티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 삼성전자는 HBM4 공개와 Q2 점유율 격차 축소가 반영

반도체(1주 +0.15%, 1개월 +0.59%, Texas Instruments +3.1, Lam Research +2.3, Nvidia +1.6, MediaTek +1.6, Marvell +1.5)

1개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상위 업종. Nvidia의 주간 상향 폭은 실적 발표 직후 +13.2%에서 이번 주 +1.6%로 둔화됐으나, TI·Lam Research 등 아날로그·장비 업체가 상향을 이어받는 모습

원유·가스(1주 +0.098%, 1개월 +0.23%, BP +2.8, Phillips 66 +2.2, Marathon +1.8, TotalEnergies +1.2, Aramco -0.8, EOG -0.8, Shell -0.6)

미·이란 재충돌로 유가가 주간 +10% 급등하며 업종 전체가 상향. 다만 내부 분화는 여전. 정제업체(Phillips 66-Marathon)와 BP-TotalEnergies는 강한 상향인 반면, Aramco-EOG-Shell 등 순수 E&P는 하향 - 유가 급등이 단기 스파이크로 인식되며 장기 생산 수익성 전망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음

소프트웨어 (1주 +0.076%, 1개월 +0.16%, Snowflake +10.8, CrowdStrike +2.1, Palo Alto Networks +2.0)

Snowflake가 업종 주도. AI 데이터클라우드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되며 소프트웨어 업종이 4주 만에 뚜렷한 상향으로 전환. 사이버보안(CrowdStrike-Palo Alto)도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보안 수요로 동반 상향

은행 (1주 +0.069%, 1개월 +0.24%, BBVA +1.3, Banco Santander +0.9)

금리 급등(10년물 4.78%)에 따른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가 반영

보험 (1주 +0.078%, 1개월 +0.22%, Munich Re -0.3, Travelers -0.2, Progressive -0.2)

금리 상승에 따른 운용수익 개선 기대. 단 Munich Re -0.3, Travelers -0.2, Progressive -0.2는 이란 재충돌로 인한 전쟁·선박 보험 손해를 우려로 역방향

하향 업종은

섬유·의류·럭셔리(1주 -0.13%, 1개월 -0.052%, Hermès -0.5)

고인플레이션과 유가 급등으로 재량 소비 여력이 압박받는 구조. 럭셔리 수요 둔화가 이익 추정에 반영되며 이번 주 하향 상위권으로 진입

에쿼티 리츠 (1주 -0.10%, 1개월 -0.017%)

10년물 4.78% 급등이 리츠 자금조달 비용과 캡레이트에 직접 부담. 전주 상향에서 하향으로 반전됐다. 데이터센터 리츠는 여전히 견조하나 오피스·상업용이 업종 전체를 끌어내리는 구조

바이오텍 (1주 -0.082%, 1개월 +0.065%, Gilead +3.2)

업종은 하향이냐 Gilead는 1주 +3.2%, 3개월 +79.9%로 독보적 역방향 강세를 유지 중. 업종 하향은 커버리지 외 중소형 바이오텍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금리 급등)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

상호미디어 (1주 -0.024%, 1개월 -0.091%, Alphabet -0.35, AppLovin -0.5)

5주 연속 하향 지속. Alphabet은 1개월 -2.3%로 AI CAPEX 대비 회수 우려가 계속 추정치를 압박. 업종 1개월 -0.091%는 커버리지 내 최악 수준.

상사·도매유통 (1주 -0.014%, 1개월 -0.085%)

1개월 -0.085%로 하향 폭이 누적되는 중. 미국 관세 확대와 글로벌 무역 물량 감소가 거래 마진 전망을 지속 압박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델, 스노우플레이크, 보잉, 길리어드사이언스, 텍사스인스트루먼트, BP, 램리서치, 필립스66, 클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머크, 마라썬페트롤리엄

하향 주요 종목은 이치치뱅크, 리오틴토, 도어다쉬, 아람코, 알리바바, 썬커에너지, 쉘, 애플러빈, 에르메스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279조원(1W +0.7%, 1M +4.8%, QoQ +21.9%). 2026E OP는 993조원(1W +0.3%, 1M +1.4%, YoY +231%). **3Q26F OP 상향 업종**은 정유, 해운, 기계, 전기장비, 가전, 철강, 제약바이오, 2차전지. **하향 업종**은 유틸리티, 건설, 화학, 게임, 비철금속, 기술하드웨어, 증권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SK스퀘어, 삼성SDI, SK, SK이노베이션, HMM, S-Oil 상향. NAVER, 고려아연, 한국전력, LG화학, 미래에셋증권, LG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로보티즈, 한미약품, GS, 하나미이크론, 코스맥스, HMM, 일진전기, SK스퀘어, LS, SK, 티에스이, NHN, 한국가스공사, 현대해상, DN오토모티브, 삼성SDI, 한국콜마, 유진테크, SK이노베이션, S-Oil, 심텍, DB하이텍, 한화솔루션, 테스, 농심, 실리콘투, 카카오, 솔브레인, 두산밥캣,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카카오페이, 이수페타시스, HD건설기계, 피에스케이, GS리테일, 삼성화재, 유한양행, 파마리서치, 산일전기, 한화, LG전자, 티씨케이, 현대지에프홀딩스, 신세계,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LG이노텍, HD현대중공업, KT, 삼성전기

외국인은 코스닥을 제외한 전 스타일에서 매도세. 코스피 2.5조원 순매도, 코스닥 60억원 순매수.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항공, 내구소비재, 증권, 소프트웨어. **순매도 상위 업종**은 디스플레이, 건강관리장비, 상사, 전기장비, 건설

연기금은 중소형주와 배당·가치주를 매수하고 성장주를 매도. 코스피 1,300억원 순매도, 코스닥 480억원 순매도.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화학, 철강, 상사, 보험. **연기금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위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유통, 자동차, 전기장비, 방산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9.7일(월)

미국 증시 노동절(Labor Day) 휴장

8일(화)

경제지표: 미국 7월 소비자신용

실적발표: Casey's General Stores(CASY)

9일(수)

경제지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실적발표: Chewy(CHWY)

10일(목) ★★

경제지표: 미국 8월 PPI / 코어 PPI (오전 8:30 ET)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 ECB 금리 결정 (BofA 기준 인상 확률 99%)

실적발표: Oracle(ORCL) 장 마감 후 - 클라우드 인프라(OCI) 성장률과 RPO 백로그가 AI 수요 지속성의 핵심 지표 / Adobe(ADBE) 장 마감 후 / Macy's(M)

11일(금) ★★★ 금주 최대 이벤트

경제지표: 미국 8월 CPI / 코어 CPI (오전 8:30 ET) - 9월 FOMC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데이터. Waller 이사가 "8월 인플레이 데이터에 따라 결정"이라 명시. 이란 재충돌發유가 +10%가 헤드라인에 반영되는지가 핵심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예비치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9월 15~16일 SEP 점도표가 포함된 FOMC(금리 인상 확률 58%), 9월 18일 BoJ 금리 결정(인상 확률 98%), 9월 19~21일 한국 추석 연휴 및 증시 휴장, 9월 하순 마이크론 분기 실적,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Quant Comment

지난 주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78%(+2bp), VIX +0.7%, SOX +3.5%, 달러인덱스 99.14(+0.3%)로 소폭 위험선호

글로벌 실적 리비전의 핵심은 AI 이익 모멘텀의 주도권 이동. 4주간 반도체가 독점하던 상향 1위 자리를 기술하드웨어(+0.33%)가 차지했고, 그 실체는 Dell의 AI 서버 백로그 \$950억. 이는 예측이 아니라 계약된 매출이며, 8월 말 6거래일 연속 반도체 조정으로 형성된 "AI 감속" 내러티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 동시에 미국 이익 상향의 폭도 IT 단독에서 에너지·금융으로 넓어짐

금주 9/11 CPI가 기준금리 방향성 결정. 유가 급등이 헤드라인에 반영되면 9/16 인상이 현실화되며 이익 상향에도 불구하고 멀티플 압축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코어가 안정적이면 Dell-Snowflake가 확인한 AI 이익 확산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

성장주 프리미엄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하는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예상